

기출 문제

춘설_정지용	002
자화상_윤동주	006
두보나 이백같이_백석	008
꽃뎀불_신석정	010
우리 동네 느티나무들_신경림	014
사령_김수영	016
꽃_이육사	018
무등을 보며_서정주	020
상행_김광규	022
섬진강1_김용택	024
그 복숭아나무 곁으로_나희덕	026
[출처 및 정답]	030
[해설]	034

정지용, 「춘설」

[1~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문 열자 선뜻!
먼 산이 이마에 차라.

우수절(雨水節) 들어
바로 초하루 아침.

새삼스레 눈이 덮힌 뒷부리와
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.

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
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.

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
아아 꿈갈기에 설어라.

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
옴짓 아니 기던*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,

㉠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
햇옷**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.

-정지용, 「춘설(春雪)」-

* 옴짓 아니 기던 : 움직이지 않던
** 햇옷 : 솜을 두어서 지은 옷

(나)

이제 바라보노라
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
온 겨울을 떠돌고 와
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
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
눈 내리는 풍경

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
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
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

㉡바라보노라 온갖 것의

보이지 않는 움직임들
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
내리는 눈 사이로
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
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
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
안에서는 어둠이노라

온 겨울의 누리 떠들다가
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
쌓이는 눈더미 앞에
나의 마음은 ㉢어둠이노라

-고 은, 「속(續) 눈길」-

(다)

초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.
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한 녀쿨이 사그러붙던 ㉣밤.
지붕 밑 양주(兩主)*는 밤새워 싸웠다.
박이 단단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
바가지 꺾어 들고 초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
작별하였다.

-오장환, 「모촌(暮村)」-

*양주(兩主) : 바깥 주인과 안 주인 즉 부부를 뜻함

1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.
- ②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③ 현실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.
- ④ 엄숙한 어조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.
-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.

2. (다)를 <보기>의 조건에 따라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- 소설로 바꾸어 쓸 것
- 원시(原詩)의 창작 의도 시적 상황을 유지할 것

- ① 현정 : 시간적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해야겠어.
- ② 수연 : 양주가 밤새워 싸운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 내어 사실감을 살려야겠어.
- ③ 철수 : 시적 화자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묘사하 고 있는 점을 살려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해야겠어.
- ④ 정호 : 초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 움막 등의 배경 묘사를 통해 당시의 쇠락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야겠어.
- ⑤ 영미 : 양주가 새 바가지 꺾어 들고 움막을 나서는 대목은 새 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희망에 부푼 모습으로 표현해야겠어.

3.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, ㉠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이젠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.
- ② 나른한 봄보다는 역시 겨울이 좋아.
- ③ 서늘한 기운을 통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.
- ④ 서러운 현재보다는 인정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.
- ⑤ 봄이 왔으니 꽃구경을 가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어.

4. ㉠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?

- ① 나는 무슨 전람회(展覽會)에 온 듯 /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, 섬세(纖細)하고도 /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. /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
- ② 마음의 기(旗)는 /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윈이 있다면 / 뉘우침 없는 일몰(日沒)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/ 그 일이란다
- ③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풀 내음새 그윽하고 가는 댕잇에 초승달 매달려 애뜻한 밝은 어둠을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훗훗 목메었느니
- ④ 겨울 눈길 지나며 /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 대보면 /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/ 이 겨울에 믿습니다
- ⑤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/ 살아오는 삶의 아픔 /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

5. ㉡, 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㉡, ㉢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상징한다.
- ② ㉡, ㉢은 모두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.
- ③ ㉡은 시적 화자가 시련에 빠진 상태, ㉢은 추운 겨울의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.
- ④ ㉡은 시적 화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이고, ㉢은 인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.
- ⑤ ㉡은 시적 화자가 도달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, ㉢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.

기출문제			
작품명	문제 출처	문제 번호	정답
정지용, 「춘설」	2학년_2006학년도 6월 15,16,17,18,19	1	⑤
		2	⑤
		3	③
		4	②
		5	⑤
	3학년_2010학년도 3월 13,14,15,16,17,18	6	②
		7	②
		8	③
		9	④
		10	④
		11	③
윤동주, 「자화상」	3학년_2011학년도 수능 13,14,15,16 [평가원]	12	④
		13	④
		14	②
		15	④
백석, 「두보나 이백같이」	3학년_2018학년도 7월 29,30,31,32	16	①
		17	②
		18	③
		19	④
신석정, 「꽃뎀불」	3학년_2016학년도 9월 A 34,35,36,37,38 [평가원]	20	⑤
		21	③
		22	②
		23	①
	1학년_2009학년도 6월 20,21,22,23,24,25	24	④
		25	①
		26	⑤
		27	⑤
		28	③
		29	③
신경림, 「우리 동네 느티나무들」	1학년_2017학년도 3월 31,32,33	30	⑤
		31	⑤
		32	③
김수영, 「사령」	3학년_2008학년도 수능 13,14,15,16,17,18 [평가원]	33	②
		34	⑤
		35	③
		36	①
		37	②
		38	②
		39	③
이육사, 「꽃」	1학년_2008학년도 9월 13,14,15,16	40	③
		41	③
		42	③
		43	①
서정주, 「무등을 보며」	1학년_2014학년도 6월 31,32,33	44	②
		45	④
		46	④